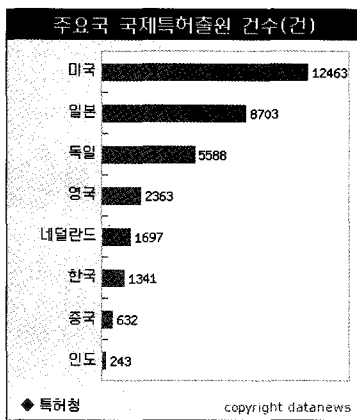


한국, 국제특허출원 세계 6위로 상승

특허청(청장 김종갑)은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우리나라의 2004년도 상반기(01~6월) 국제특허출원 건수는 총 1천3백41건으로 전년도 세계 7위에서 세계 6위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04년도 상반기 PCT 국제특허 다출원국가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네덜란드, 우리나라 순으로, 우리나라의 PCT 국제출원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99년 세계 14위, 2000년 세계 11위에서 2003년 세계 7위로, 그리고 금년 상반기에는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6위로 상승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국제특허출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데에는 국내 기업들의 기술개발 및 해외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개발기술

의 국제적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가운데 우리나라 특허청이 '99년부터 국제조사기관(ISA: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ies) 업무 등 국제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제특허출원에 관심있는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PCT 국제출원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특허청의 적극적인 홍보 노력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지식재산과 관련된 국제무대에서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WIPO 내의 사업예산위원회(PCB:Program and Budget Committee) 의장국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다.

국제특허 전자출원 한국 39.7%로 세계 최고

국제특허협력조약(PCT)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국제특허 전자출원 비율이 세계 최고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청은 세계 지식재산권기구(WIPO)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올해 상반기 국제특허 전자출원 비율이 39.7%로 10%대의 타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고 지난 10월 10일 밝혔다. 특허청은 올해부터 WIPO와의 협력으로 전자출원을 시작했으며, 9월 현재 프랑스·독일·유럽·핀란드 등 7개 기관이 전자출원을 냈다. 우리나라는 올해 상반기 1천3백41건의 PCT 국제특허 출원을 제출했으며, 이 가운데 39.7%인 5백32건을 전자출원했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한국 생명공학분야 미국 특허 증가세

생명공학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특허취득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6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1985년부터 지난해까지 미국에서 등록된 한국 기업들의 생명공학분야 특허는 총 3백58건으로, '85~'87년엔 2건이었지만 '88~'91년 6건, '92~'95년 35건, '96~'99년 1백11건, 2000~2003년 2백4건 등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15위에 해당하는 특허수로 최근 국내 화학회사와 공공연구기관들의 특허출원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생명공학은 산업특성상 고급인력과 장기투자기간, 투자비 등이 필요해 민간분야에서 주도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선진국들과 기술경쟁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전략수립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달청, 전자입찰 BM 특허 획득

조달청은 지난 2001년 국내 최초로 도입한 전자입찰과 관련해 특허청으로부터 비즈니스모델(BM)특허를 획득했다고 지난 10월 5일 밝혔다. 이번에 획득한 특허의 명칭은 '전자입찰방법 및 이를 저장한 기록 매체'로 전자입찰 절차와 처리 방식, 암호화 모델 등과 관련한 기술 내용이 담겨 있다. 조달청의 이번 특허 등록은 전자정부 사업 추진에 따른 지적재산권을 확보, 공공기관간 기술을 공유하고 제3자의 배타적 권리 주장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민형중 물자정보국장은 '특허 획득으로 전자입찰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 강화는 물론 유엔세팩트(UN/CEFACT) 국제 표준화 활동 등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며 '전자입찰의 세계 표준을 선도함으로써 한국 전자정부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술혁신 중소기업 특허 우선 심사대상 포함

앞으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특허청의 특허우선 심사 대상에 포함돼 심사 기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특허우선 심사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지난 10월 18일 밝혔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 특허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이번주 중으로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12월)와 국무회의 심의(내년 1월)를 거

쳐 내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허우선 심사대상에 포함되면 해당기업은 평균 3개월 이내에 특허 심사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일반기업의 경우 현재 특허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평균 22.1개월(2003년말 기준)을 기다려야 한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첨단 기술기업으로 2001년 처음 도입됐으며 지난해 말 현재 중소기업청으로부터 2

천3백75개가 지정받았다.

특허청 관계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개발기술을 신속히 권리화할 필요가 있어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이로 인해 이들 기업의 기술개발을 보다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의 우선 심사대상은 벤처기업, 방위산업, 공해방지산업, 신기술 개발 및 품질인증 사업 등 10개 분야 기업으로 지난해 2천4백45개 기업이 혜택을 봤다.

위니아만도 '삼성과는 화해, LG와는 전쟁'

김치냉장고에서 출발해 에어컨으로 번졌던 위니아만도와 삼성전자 및 LG전자의 특허 분쟁이 김일태 위니아만도 사장 취임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은 것으로 밝혀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위니아만도와 삼성전자는 더이상 문제를 삼지 않는 선에서 해결을 한 것으로 밝혀진 반면 위니아만도와 LG전자는 소송대결로 번지며 일촉즉발의 전쟁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위니아만도 관계자는 지난 10월 12일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할 수 없지만 지난 7월 어느 누구도 손해보지 않는, 상호 윈윈하는 조건으로 삼성전자와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양사간 특허분쟁은 작년 10월 위니아만도가 삼성전자에 김치냉장고 특허 침해로 주장하는 경고장을 보내면서 처음 시작됐다. 위니아만도가 '특허 침해를 중단하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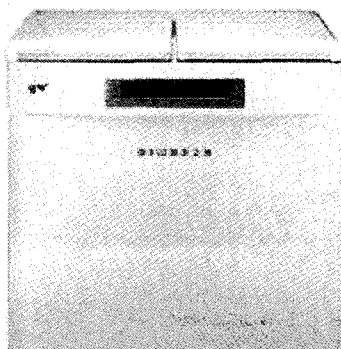
나 특허료를 내라'고 주장하고 나서자 삼성전자는 에어컨 특허권을 앞세워 위니아만도에 역공을 펼쳤다. 이처럼 양사가 서로 김치냉장고와 에어컨 특허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한데는 김일태 위니아만도 사장이 올 1월 신임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부터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니아만도 관계자는 '김일태 사장이 취임 후 업무 보고를 받고 삼성전자와 불거진 특허 문제를 상호 윈윈하는 조건에서 해결하도록

지시했다'며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쟁점거리는 마찬가지여서 원활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일태 사장은 지난 72년 삼성전자 수출부에 사원으로 입사해 미국 영업담당 부사장, 미주총괄대표, 가전본부장, 경영혁신팀장 등을 거쳐 2001년까지 삼성전자 멀티미디어본부 해외사업본부장으로 지냈다.

이와달리 위니아만도와 LG전자는 여전히 냉전 중이다. 위니아만도는 LG전자에 김치냉장고 특허 침해에 관한 본안 소송을 진행 중이며 LG전자 역시 이에 대응해 위니아만도를 에어컨 특허 침해로 소송을 제기해놓고 있다.



김치냉장고를 최초 개발, 특허출원하여 김치냉장고 생산 분야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위니아만도가 지난 여름 새롭게 선보인 2005년형 다투 '에센스'.

지 / 면 / 안 / 내

- 2 한국, 국제특허출원 세계 6위로 상승
- 3 대학 지재권 교육에 앞장 선 한국발명진흥회
- 4 특허청, 전상우 특허청 차장과 송주현 특허심판원장 승진 임명
- 5 CJ, 한미약품과 상표권 분쟁서 승리
- 6 특허 특성화 대학, 충북 영동대학교 발명특허학과
- 9 인물 FOCUS·아이사랑 솔루션 임경자 대표
- 10 성일중학교 발명공작교실
- 13 캐논, 특허권 침해로 3천4백만불 배상 명령 받아
- 14 '저작권 올림픽' 한국서 열렸다